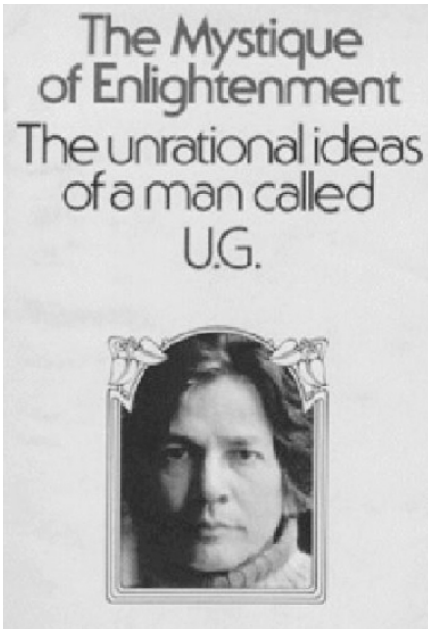


## 깨달음의 신비

### U. G. 라는 사람의 비이성적인 생각(5부)

| U.G. 크리슈나무르티 | 노호상 옮김 |

자연스런 의식의 본원 상태는 이루려고 하거나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진다는 것. 그것은 행복이나 환희의 경험과도 상관 없으며 그저 이미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5부)

(1973년 인도와 스위스에서 나는 대화를 제임스 브로드스키가 정리하다)

나는 누구를 해탈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해탈시켜야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저 '신성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쳐놓은 비술과 신비의 장막을 걷어내고 이 상태를 설명하는 데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당신이 자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상태를 찾아 헤매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어쩌면 당신을 확신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자. 내가 설명하는 이것은 당신의 상태,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지, 나의 상태 혹은 신을 인식한 사람의 상태가 아니며, 변형된 사람이나 혹은 그와 같은 사람의 상태도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드러나지 못하는 까닭은 당신이 어딘가에 도달하려 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되려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상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의 과거 경험에 비춰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험의 영역을 벗어난다. 자연스런 상태는 인과 관계가 없다. 그저 일어날 뿐이다. 어떤 의사소통도 가능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당신에게 실재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나의 설명을 당신이 작용하는 방식에 연결시키는 것은 소용없는 행위다. 당신이 비교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그때 당신은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가르침”은 그것에 맞는 용어가 아니다. 가르침이란 삶의 방식에서 변형을 가져오기 위해 적용되는 방식이나 체계, 기법 혹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가르침의 영역 밖에 있다. 이것은 그저 내가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 생각의 교묘한 책략에서 벗어나면 당신 또한 그렇게 작용하게 된다.

자연스러운 상태는 자아를 인식하거나 신을 인식한 사람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이루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속에서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있다.’ 살아있는 상태다. 이 상태는 삶을 영위하는 행위일 뿐이다. 내가 삶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추상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생각의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기능하는 감각적인 삶이다. 생각은 침입자로 감각의 일에 거칠게 끼어든다. 생각은 이익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 생각은 감각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감각의 활동을 지시하고 생각을 지속시키기 위해 감각을 이용한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종교적인 지복의 상태나 행복, 환희의 상태와 아무 관계없다. 그런 것들은 경험의 영역 안에 있다. 종교심을 추구하는 이들로부터 수세기에 걸쳐 추앙받은 인물들은 그런 종교적인 상태를 경험했을 것이다. 당신도 경험할 수 있다. 그것들은 생각에서 유도된 존재 상태이다. 그래서 그런 상태는 언젠가 생겨났듯이 언젠가는 다시 사라진다. 크리스나 의식, 붓다 의식, 그리스도 의식, 혹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여정이다. 그러한 의식은 모두 시간의 영역 안에 있다. 영원은 결코 경험될 수 없고, 파악되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으며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표현된 적도 드물다.

그렇게 밟아 다져진 길은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저 너머에 존재하는 오아시스란 없다. 당신은 신기루에 붙들려 있다.

이 상태는 당신 존재의 물리적인 상태이다. 어떤 심리적인 변형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서 어느 날 그 상태가 되었다가 다음 날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생각은 육체의 모든 세포 작용에 스며들어 간섭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 정도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자연스러운 상태에 들어갈 때면 모든 세포, 모든 내분비선, 모든 신경이 폭발할 것이다. 이것은 화학적인 변화다. 일종의 연금술이 일어난다. 그러나 LSD와 같은 화학적인 마약의 경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것들은 경험이지만 이것은 경험이 아니다.

---

깨달음과 같은 일이 존재하는가? 나에게 존재하는 것은 순수하게 물리적인 과정이다. 신비하거나 영적인 것은 없다. 나는, 눈을 감으면 어떤 빛이 눈꺼풀을 통해서 스며든다. 눈꺼풀을 가려도 내부에 여전히 빛이 있다. 이마에 일종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멍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로 어떤 것이 스며든다. 인도에서 그런 빛은 황금색이다. 유럽에서는 푸른빛이다. 목 뒤로도 그런 빛이 스며들고 있다. 마치 두개골 앞뒤에 있는 두 지점을 어떤 빛이 관통하는 듯하다. 안에는 이 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 지점들을 덮으면 완전히 암흑이다. 이 빛은 어떤 작용도 하지 않고 육체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도록 돕지도 않는다. 그저 그곳에 있을 뿐이다.

---

이 상태는 모름의 상태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

말 알지 못한다. 나는 반시간 동안이나 벽의 시계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시간을 보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것이 시계인지도 모른다. 안에 있는 것은 경이로움뿐이다. “내가 쳐다보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지?” 의문이 실제로 이렇게 언어로 떠오른다는 것은 아니다. 내 존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의문부호와 같다. 이것은 놀라움, 경이로움의 상태다. 나는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한 지식—내가 배웠던 모든 것—은 요구가 없는 한 뒷배경으로 있을 뿐이다, 이것은 ‘클러치가 풀려있는 상태’에 있다. 만약 당신이 시간을 묻는다면, 나는 “3시 15분이요” 라고 말한 다음—이런 반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온다—다시 모르는 상태, 경이로움의 상태로 들어와 있다.

---

당신은 항상 당신 안에 존재하는 엄청난 평화, 그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당신의 노력이 사실 당신 안에 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당신은 그저 평화를 이야기하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 자신이 매우 평화롭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폭력이다. 그래서 평화를 연습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침묵을 수행할 이유도 없다. 진정한 침묵은 폭발적이다. 이것은 영적인 구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의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다. “아 나는 내 자신과 평화로워! 침묵, 엄청난 침묵이 있어! 나는 침묵을 경험하네!”—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그 자체의 성질상 화산과 같다. 늘 끓고 있다. 에 지이고 생명이다. 이것이 그 속성이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

다면 삶은 스스로를 자각한다. 삶은 삶 자체를 의식하고 있다.

---

내가 말하는 ‘느낌’은 당신이 말하는 ‘느낌’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사실 느낌은 육체적인 반응이고 가슴샘의 쿵닥거림이다. 내분비선의 하나인 가슴샘은 갈비뼈 안 에 위치해 있다. 의사들은 가슴샘은 어린 시절에서 사춘기까지 활동적이다가 그 이후로 휴면기에 든다 말한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면, 가슴샘이 다시 활성화된다. 그곳에서 감각이 느껴진다. 그 느낌을 ‘좋다’, ‘나쁘다’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쿵닥거림일 뿐이다. 만약 당신 밖에 움직임이 있다면—시계추가 흔들린다거나 시야에서 새가 날아간다거나—그런 움직임이 가슴샘에서도 느껴진다. 당신의 존재 전체가 그런 움직임이 되거나 그런 소리와 함께 진동한다. 아무 구별이 없다. 그렇다고 “나는 저 날아가는 새다”라는 식으로 당신이 자신을 그 새 혹은 그 무엇과 동일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신’도 없고 그 어떤 대상도 없다. 무엇이 그런 감각의 원인이 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 당신은 그것이 감각이라는 것도 모른다.

‘영향affection’이란(이것은 그 말에 대한 나의 해석이 아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어떤 감정이 당신으로부터 어떤 것을 향해 흘러간다는 뜻이 아니다.<sup>1)</sup> 자연스러운 상태는 대단히 민감한 상태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감각의 민감성이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감정적인 자비심이나 다정함이 아니다. 나에게서는 ‘타자’가 없

---

1) affection은 원래 애착 또는 애정을 뜻하나, 특이하게도 이 글에서는 ‘영향을 주다’라는 뜻의 동사 affect를 명사화하여 ‘영향’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나의 해석이 아니다’라는 UG의 언급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편집자 주.

다는 의미에서만이 자비가 있고, 그래서 분별이 없다.

---

당신 안에 ‘나’ 혹은 ‘마음’ 혹은 ‘자아’라고 부를 실체가 있는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과 조율하고, 당신이 냄새 맡고 있는 것을 맛보고 있는 것과 조율하는 조율자가 있는가. 아니면 눈으로 들어온 자극의 흐름처럼, 단 하나의 감각기관에서 비롯된 다양한 느낌들을 모두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사실 어떤 두 느낌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다. 조절자는 그 간극을 연결한다. 그 조절자는 연속성이라는 환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감각기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조율할 실체가 없다. 각각의 감각이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한두 가지 혹은 모든 감각을 조율해서 반응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외부에 있을 때조차도 조율하는 자는 없다. 일시적인 조율 상태만 있다. 연속성이 없다. 요구가 충족되고 나면 감각기능들이 다시 단절되어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 늘 그렇다. 일단 연속성이 떨어져 나가면—연속성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연속성이라는 환상을 말하는 것이다—그것으로 영원히 끝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수궁이 되는가? 안 될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경험의 틀 안에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해 생각의 틀이다. 하지만 이 상태는 경험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상태에 대한 ‘감’을 주고 싶지만 그 ‘감’은 안타깝게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

조율자도 없고 감각들 간의 연결도 없으면, 감각에 대한 해석도 없다. 그저 순수하고 단순한 감각으로만 남아 있다. 나는 그것들이 감각인 것도 모른다. 당신이 말을 하면 나는 당신을 쳐다볼 것이다. 당신의

내 발을 쳐다보고 있어도 이것이 내 발이라고 말하는 자는 없다.  
건고 있을 때 나는 내 발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움직이고 있는 저것이 무엇이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생각이 닿지 않은, 태초의 의식이다.

입이 움직이고 있으므로 내 시선도 그 입에 가 있을 테고, 귀로는 소리의 진동을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당신이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자는 없다. 나는 땅에서 솟아나는 샘을 보면서 물소리를 들겠지만, 들리는 소리가 물소리라고 말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보고 있는 것과 그 소리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자도 없다. 내 발을 쳐다보고 있어도 이것이 내 발이라고 말하는 자는 없다. 건고 있을 때, 나는 내 발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움직이고 있는 저것이 무엇이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생각이 닿지 않은, 태초의 의식이다.

---

눈은 매우 민감한 카메라와 같다. 생리학자들은 대상에 반사된 빛이 눈의 망막을 건드리고 그 감각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간다고 이야기한다. 보는 능력, 시각능력은 단지 육체적인 현상이다. 눈 덮인 산봉우리를 보든 쓰레기통을 보든 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설산이든 휴지통이든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감각을 만들어낸다. 눈은 아무런 구별 없이 모든 이를, 모든 것을 본다.

당신은 눈을 움직이게 하는 ‘카메라맨’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눈에 맡겨 두면—‘카메라맨’이 없으면—눈은 한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 눈은 외부의 것들에 끌려 다닌다. 움직임이나 빛, 주변과 대비되는 색깔이 눈길을 끌어당긴다. 쳐다보는 ‘나’는 없

다. 산, 꽃, 나무, 소, 이 모든 것이 나를 본다. 의식은 밖에 있는 그 무엇이든 비춰내는 거울과 같다. 깊이와 거리와 색과 모든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석할 자는 없다. 쳐다보고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저기 있는 것과 구별도 없고 거리도 없다. 방 저편에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털을 실제로 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면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선명하다.

갑작스러운 위험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외부의 것이 계속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눈이 피곤해지면 육체 안에 내장된 장치가 눈을 가린다. 그래서 눈을 뜨고는 있지만 식별이 흐릿해진다. 만약 눈을 늘 뜨고 있고, 깜빡이는 반사 행위가 작동하지 않으면 눈이 건조해져서 장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눈 바깥에 있는 분비선이 활성화되어—당신의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겠지만—수분을 공급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그래서 눈꼬리에서 늘 눈물이 흐른다. 무지한 사람들은 ‘즐거움의 눈물’ 혹은 ‘지복의 눈물’이라 말하지만 사실 신성한 것은 없다.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수행으로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눈만 피곤해질 뿐이다. 정신병원에는 어떤 이유로 눈을 깜빡이지 않는 정신병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그것은 병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행운이든 우연이든 일단 당신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면 이 모든 일은 저절로 일어난다.

---

아름다움은 보는 자의 눈에 있는가, 대상에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아름다움은 생각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나는 멈춰 서서 내 앞에 있는 산에 대해서 시를 쓰지 않는다. 일어나는 일은 나는 걷고 있

다는 것이고 빛이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빛 자체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빛이 변하기 전까지는 없었던 듯한 명료함도 있다. 이런 의식은 갑자기 육체 앞의 대상의 크기로 확장되고 폐는 깊은 호흡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프라나야마(호흡수련)이다. 방에 앉아서 한쪽 코로 숨을 들이쉬고 다른쪽 코로 내쉬는 식으로 하는 수련이 아니다. 이 프라나야마는 계속 진행된다. 그렇게 호흡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식되다가 소의 울음소리나 자칼의 울음소리처럼 그 밖의 다른 것으로 옮겨간다. 그것은 항상 움직인다. 그것은 생각이 아름답다고 결정한 어떤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향을 결정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자신의 소리만 들을 뿐이다. 당신이 청각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존재하는 것은 소리의 진동뿐이다. 그 말은 당신 안에서 스스로 되풀이된다. 마치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울림방에 있는 것과 같다. 청각은 바로 그와 같은 식으로 당신에게 작용하고 있다. 당신이 듣고 있는 말이 당신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당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결코 한 단어도 들을 수 없다. 당신은 다만 당신 자신의 해석을 들을 뿐이다. 늘 그렇다. 당신이 듣고 있는 그 말들은 모두 당신의 말들이다. 다른 사람의 말은 당신에게 소음일 뿐이거나, 고막을 건드려서 뇌로 연결된 신경에 전달되는 진동밖에 될 수 없다. 당신은 계속 그런 진동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듣고 있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 여기 돈이 있어요, 당근 1kg 주세요.”라는 그런 차원에서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한계이다.

아무런 해석이 없을 때 모든 언어는 당신의 특정 지식구조가 어떤 언어를 말하든 관계없이 같은 소리를 낸다. 유일한 차이는 음절의 간격과 음조에 있다. 언어는 멜로디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 고양이의 울음소리보다 더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은 습득된 취향이다. 둘 다 똑같은 유효한 감각을 만들어 낸다. 물론 어떤 소리는 몸에 해를 줄 수 있다. 어떤 데시벨 이상의 소음 수준은 신경계에 해를 주어서 귀를 멀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이나 시, 언어를 평가하는 것은 모두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고 생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

생각의 움직임은 촉감의 과정 또한 방해한다.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항상 ‘딱딱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차갑다’, ‘촉촉하다’, ‘보송보송하다’ 기타 등등으로 해석된다.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의 육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이다. 생각의 과정 없이는 몸에 대한 의식도 없다. 육체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나의 육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점점이 떨어져 있는 접촉면과, 생각으로 묶여 있지 않은 촉감의 진동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몸이 주변에 있는 대상과 다르지 않게 된다. 다른 물체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감각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육체가 당신 것이 아닌 게 된다.

어쩌면 그 ‘느낌’을 당신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몇 시에 잠자리에 들든 4시간만 잠을 잔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깨어서 아침까지 침대에 누워있다. 나는 침대에 무엇이 누워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왼 으로 누워있는지 오른 으로 누워있는지 알지 못한다. 수 시간을 그렇게 누워 있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새소리나 어떤 다른 소리—그 소리가 내 안에서 울리기만 한다. 가슴에서 ‘쿵닥 쿵닥’ 하는 소리를 듣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불 사이에 아무런 육체가 없다. 육체의 형태가 없다. “무엇이 있지?”라는 의문이 들어도, 접촉점에 대한 각성만 있을 뿐이다. 육체가 침대와 이불과 접촉하고 있다는 각성만 있다. 다리를 꼬고 있을 때 그 접하는 곳을 의식하듯이 말이다. 이러한 점점들에서 느껴지는 촉감만 있다. 나머지 육체는 없다. 약간의 무거움이 있는데, 아마도 중력의 당김으로 매우 모호한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연결할 것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비록 눈을 뜨고 전체의 몸을 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점점만이 있을 뿐 그것들은 내가 보고 있는 것과 아무 연결이 없다. 내가 이런 점점들을 내 몸의 모양대로 연결하려고 노력하면 아마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완성될 무렵 몸은 다시 같은 상황의 다른 점점으로 돌아간다. 연결이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앉아 있든 서 있든 다들 바 없다. 육체가 없다.

당신은 망고 주스의 맛이 어떤지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없다. 당신 역시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망고 주스의 맛을 되살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당신은 그 맛이 어떤지에 대한 일종의 경험을 홀로 창조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과거의 지식을 작동시켜 “그래, 이것이 망고 주스 맛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망고 주스가 혀에 닿아 있어야 한다. 망고를 보고 냄새 맡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나 ‘맛’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 가면 내가 늘 좋아했던 물건으로 손이 자동으로 간다. 그러나 나는 정신적인 경험을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없다.

냄새는 맛보다 당신의 일상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한다. 후각 기관은 냄새에 항상 열려 있다. 그러나 이런 후각에 당신이 간섭하지만 않는다면, 남아있는 것은 단지 코 속의 자극일 뿐이다. 소퐁의 냄새를 맡으나 값비싼 프랑스제 향수의 냄새를 맡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저 코를 문지르고 지나갈 뿐.

---

나의 이야기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다. 자연스런 상태에서는 앉아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것은 나에게 인위적인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대답을 내놓는 자는 없다. 당신이 내게 공을 던져서 공이 다시 튀어 나왔는데 그것을 당신이 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상태가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모른다. 내 말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나의 이야기를 적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다.

여기 있는 것, 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잡을 수 없고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것은 꽃과 같다. (이런 비유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꽃이 그저 피어나서 저기 있다. 그 꽃이 있는 한 그 꽃은 다른 모든 꽃들과 구별되는 향기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그 향기를 인식하지 못할지 모른다. 당신은 그것에 시나 노래를 쓰거나 할지도 모른다. 돌아다니는 소가 그 꽃을 먹을 수도 있고 혹은 풀 베는 사람에게 잘리거나 그냥 시들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이 끝

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그 향기를 보존할 수 없다. 당신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이란 화학적으로 합성한 향수일 뿐,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사람의 표현이나 가르침, 말을 간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상태의 가치, 이 상태의 표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만 드러난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Mystique of Enlightenmen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저자 | **U.G. 크리슈나무르티** | Uppaluri Gopala Krishnamurti (1918.07.09~2007.03.22) | 깨달음에 의문을 제기한 인도 사상가였다. 개인의 일상에서 '사고(思考)'가 필요한 하지만 궁극적 실재나 진리라는 의미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고체계와 지식을 부정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깨달은 사람'이라 여기지만 U.G.는 자신의 존재 상태를 '자연스런 상태'라고 부른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는 동시대 인물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홈페이지: [http://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http://en.wikisource.org/wiki/The_Mystique_of_Enlightenment/Part_One)

역자 | **노호상** | (지금여기) 번역위원. natural state of life에 관심이 많다. 역서로는 오소의 『법구경』(전 12권, 황금꽃)이 있다.